

2026. 6. 8 (월)

가본 길 vs 가보지 않은 길

- 가파른 상승 속도와 풀림의 반작용. 지지선을 다지고 가는 단기 조정 트리거 발생
- 트리거: 제한된 6월 추가 모멘텀 속 1) 금리, 2) AI 산업 우려, 3) 선물옵션만기
- 1), 2)는 단기 이격도를 줄이는 변수, 3)은 과한 하락이 추가 하락을 유발 가능
- 단기 이격도 기준 KOSPI 1차 지지선 7,700pt 지킬 수 있는지 여부 중요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6월 첫째주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단기 과열 우려 속 조정 트리거 몇 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면서 미국, 한국 주가 낙폭 확대. 1) 고용 서프라이즈와 금리 재상승, 2) 브로드컴 실적 쇼크+SOCAMM2 우려, 3) 선물옵션만기와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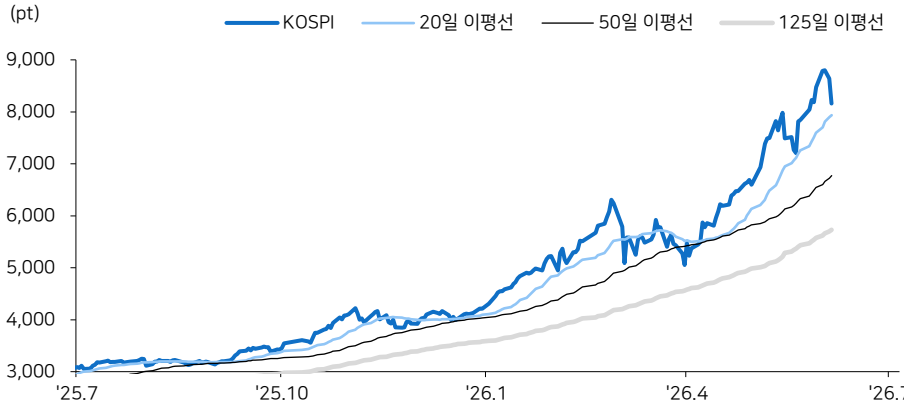
1), 2)는 주가 지수 낙폭을 크게 키울 변수는 아니라는 판단. 실적 기반 상승장에서 성장에 기대 금리 상승으로, 하반기 전망에서도 분석했지만 비용(금리)보다 성장이 앞서면 금리는 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함. 게다가 5월 고용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

6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요인, 주가가 풀려있다는 인식을 되돌리는 기제로 작용. 여기에 2) 브로드컴 실적 가이드스 쇼크는 파운드리 확보 문제로 AI 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 SOCAMM2 이슈도 마찬가지로(6월 5일자 당사 김선우/양승수 위원 보고서 참고)

3)은 이전 조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 6/11 한국 선물옵션 만기일로 지수가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 숏감마 포지션은 하락할수록 선물을 더 팔아야 하고, 레버리지 ETF도 기초지수 하락을 따라 노출을 줄이면서 기계적 매도를 보낼 수 있음.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결제 포지션이 큰 상태에서는,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옵션 매도자의 감마 헤지, 선물 롤오버,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리밸런싱 매매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음. 특히 지수가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 숏감마 포지션은 하락할수록 선물을 더 팔아야 하고, 레버리지 ETF도 기초지수 하락을 따라 노출을 줄이면서 기계적 매도를 보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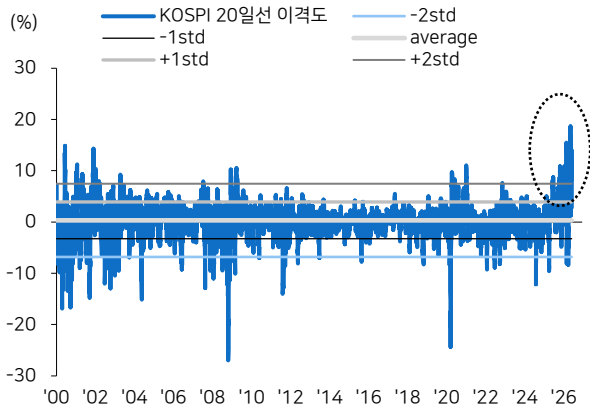
최근 조정과 유사하게 지수의 단기 이평선과 과한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라면, 1차 지지선은 7,700pt(20일 이평선 -1표준편차)~7,940pt(20일 이평선)로 봄. 단기에 이 지지선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목요일까지 3)에 기인한 추가 낙폭 확대를 걱정해야 할 수 있음

그림1 KOSPI 지수와 이동평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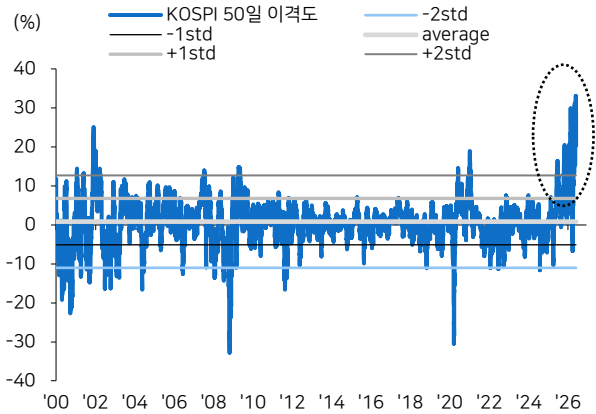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KOSPI 20일 이평선 이격도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KOSPI 50일 이평선 이격도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